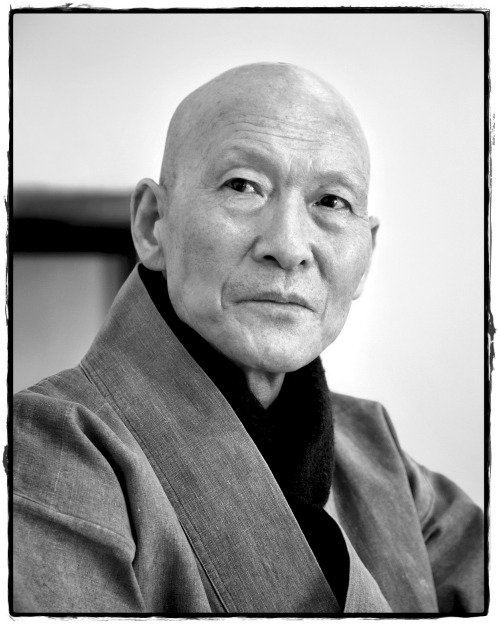
마음 · 세상 · 자연

맑고 향기롭게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움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 頂 -



2010 / 4

법정 스님 추모 특집

침묵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무소유
맑은 가난
나누는 기쁨
지금 여기에서
보다 단순하고 간소하게
날마다 새롭게

그리고
.
.
.
맑고 향기롭게

〈법정 스님의 글에서 자주 만나는 언어들〉

맑고 향기롭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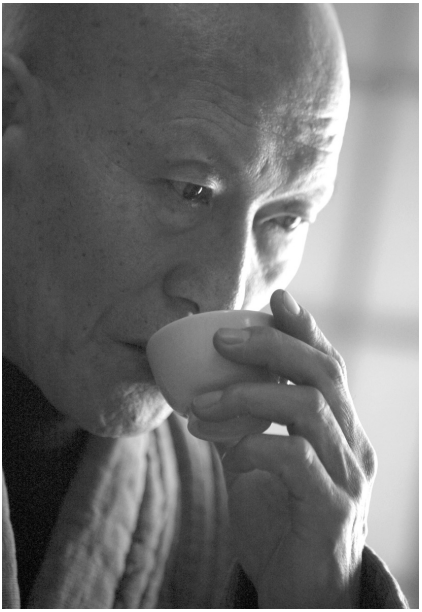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사)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2010 / 04

04 이 시대의 연꽃과 같은 영혼의 스승
09 행장
17 저서
20 다시 읽는 글 '무소유'
23 법정 스님 어록
28 내가 만난 스님
30 맑고 향기롭게
31 맑고 향기로운 도량 길상사
32 2009년도 수입·지출 결의서
34 나누는 기쁨
36 서울모임 소식
39 여기는 길상사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 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10년 4월 1일 발행 / 통권 182호 / 등록번호 라08708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 발행인 및 편집인 여운현 / 편집장 김자경 /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7 전송 741-4698 / 인쇄인 황두천 /
인쇄처 계명문화사 / 부산모임:(051)898-2672~3 / 대전모임:(042)823-0770 / 경남모임:(055)266-0170 / 광주모임:(062)236-3129 /
대구모임(053)753-8883 / http://www.clean94.or.kr E-mail : wlotus94@clean94.or.kr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945~6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E-mail : webmaster@kilsangsa.or.kr



이 시대의 연꽃과 같은 영호의 스승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움은 그 청정의 메아리를 뜻한다.'

맑고 향기로운 세상을 가꾸는데 앞장 선 법정 스님은 1932년 전남 해남에서 태어났다.

스님은 목포상업학교를 졸업하고 전남대 상과대학 3학년을 수료한 뒤 진리의 길을 찾아 출가를 결심했다.

"난 그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인이 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휴전이 되어 포로 송환이 있을 때 남쪽도 북쪽도 마다하고 제3국을 선택, 한반도를 떠나간 사람들 바로 그런 심경이었다."

출가에 대한 스님의 변이다.

1954년 통영 미래사에서 효봉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스님은 1959년 해인전문강원을 수료하고 비구계를 수지했다.

그 뒤 스님은 〈불교사전〉 편찬 작업, 동국대 역경원 역경위원 등 불교계 언론과 출판 분야에서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다.

1970년 초반 대한불교신문(현 불교신문의 전신) 논설위원과 주필을 맡아 날카로운 필력을 드러냈다. 1972년 첫 에세이 집 〈영혼의 모음〉을 동서문화원에서 출판, 장안의 화제를 모았다. 1973년 6월에는 함석헌이 주도했던 '씨올의 소리' 편집위원으로 합세하면서 씨올의 소리의 큰 활력을 불어넣기도 한다. 스님은 또 장준하 선생과 함석헌 선생을 가까이 하면서 민주수호국민협의회와 유신철폐 개헌서명운동에 참여했다. 이때 기관원이 절에 살다시피 하면서 감시하고 걸핏하면 연행해 가 괴롭혔다.

"피해자 처지에서 군사독재 당사자들을 향해 적개심과 증오심을 품게 되어 마음이 편치 않았다." 핍박을 받는 처지였음에도 당시의 심정을 스님은 이렇게 회고하셨다.

1964년 박정희 정권이 굴욕적 한일회담 반대 시위로 위기에 봉착하자 41명의 혁신계 인사와 언론인 · 교수 · 학생 등이 인민혁명당을 결성하여 국가전복을 도모했다고 조작 발표한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1972년 12월 독재 정권 연장을 위한 유신 헌법이 발효된다. 이에 학생, 시민, 민주계 인사 등의 유신 철폐 개헌 서명 운동이 일어났고 여기에 스님도 뜻을 함께 하였다. 그러자 독재 정권은 또다시 1975년, 이른바 제2 인혁당 사건(일명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라 불리는 정치 조작극을 벌인다. 도예종 등 사회주의 성향을 보이는 한 무리의 인사들을 또 다시 국가전복 기도 혐의로 구속, 재판에 회부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사형이 언도되고 그에 대한 대법원 상고가 기각된 지 채 20시간도 지나지 않은 바로 그 이튿날 여덟 사람 전원을 사형시키는 사법 사상 유래가 없었던 만행을 저지른다. 이를 목격한 법정 스님은 큰

충격을 받는다.

"죄 없는 그들을 우리가 죽인 거나 다름이 없다고 자책했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독재자들에게 조작극이라고 가장 아픈 곳을 찌르자 보란 듯이 서둘러 사형을 집행한 것이다."

그 사건을 계기로 생때같은 젊은이들을 하루아침에 죽게 만든 이와 같은 반체제운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곰곰이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는 법정 스님은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산으로 들어가신 까닭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신다.

"민주화 운동을 할 때 박해를 받으니까 증오심이 생기더군요. 내 마음에 독을 품는 게 증오심인데 그때 '이래선 수행에 도움이 안 되겠구나'하고 느꼈어요. 순수한 마음에서 이탈하는 게 괴롭고, 중노릇하는 내 본분이 뭐냐고 스스로 물었지요. 본래 자리로 돌아가자. 해서 산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지금도 세상일에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지요."

무슨 운동이든지 개인 인격형성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스님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 무엇 때문에 출가수행자가 되었는가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씀하신다.

"이웃에 불이 났을 때 소방관이고 누구고 할 것 없이 모두 나와서 급한 불을 꺼야 한다. 하지만 일단 불이 잡힌 뒤에는 각자 원위치로 돌아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몫을 다해야 한다."

75년 10월 스님은 거듭 털고 일어서는 각오로 미련 없이 서울을 등지고 송광사로 돌아갔다.

부도만 남아있던 불일암 터에 스님은 토굴을 다시 짓고 홀로 있으면서도 대중과 함께 수행하듯 철저한 자기 질서 속에 독서와 수행에 힘쓰셨다. 이 무렵인 1976년 발간된 저서가 바로 34년 세월이 흘렀건만 오늘에도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무소유〉이다.

1984년 스님은 송광사 수련원장을 맡는다. 4박 5일 일정으로 수련생들에게 1,080배를 하게 하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움은 그 청정의 메아리를 뜻한다.'

고, 윤좌 모임을 열고, 참선 실수실참을 하는 등 매년 실시되던 여름 선 수련회 기틀을 잡았다. 매년 7월과 8월, 불과 두 달간 열리는 수련회 연 참가 인원은 평균 500여 명으로 불자는 물론 타 종교인들에게까지 큰 호응을 받았다. 송광사 수련회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뒤 웬만한 큰 사찰들은 거의 여름철 선 수련회를 실시할 정도로 반향을 일으켰다.

어느 날 스님은 다시 한 번 버리고 떠난다. 17년 간이나 살았던 정든 불일암을 끊임없이 찾아드는 사람들 등쌀에 그조차 뒤로 하시고 화전민이 살다가 버리고 간,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강원도 산골 오두막에 든 것. 1992년 일이다.

1993년 7월 연꽃이 불교를 상징하는 꽃이라는 까닭 하나만으로 독립기념관, 경복궁, 창덕궁 연못의 연꽃이 모두 뽑혀 나가는 기막힌 현실과 마주선다. 나라 지도자가 신앙하는 종교에 앞서 충성하려는 너무나 얄팍한 몇몇 사람의 처사였음을 접한 스님은 아연실색하셨다. 그 어이없는 심정을 '연못에 연꽃이 없더라'는 글로 발표하신다.

이 일을 계기로 스님은 다시 한 번 세속 일에 관여하게 된다. 날로 각박해져만 가고 메말라만 가는 우리 심성을 마음과 세상과 자연을 두루 맑고 향기롭게 가꾸면서 살아가자는 순수 시민운동을 주창한 것이다. 주변 친지들의 권유와 시주의 은혜로 살아온 출가사문으로 작은 역할이나마 하시겠다며 1993년 8월 스님은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 준비모임'을 발족 시키고 1994년 1월에는 연꽃을 로고로 한 스티커 10만장을 무료 배포하며 서울과 부산 이어 대구, 광주, 경남, 대전 등지에서 스님 최초의 대중강연을 하시며 모임을 만들고, 여기에 뜻을 함께 하겠다는 회원

들을 2010년 3월 입적하실 때까지 17년간 이끌어 주셨다.

한편 법정 스님이 늘 강조하고 실천했던 무소유 사상에 감동한 길상화(고 김영한) 보살이 성북동 대원각 터 7천여 평을 스님께 시주함에 따라 1997년 12월, '맑고 향기롭게' 근본 도량인 길상사가 개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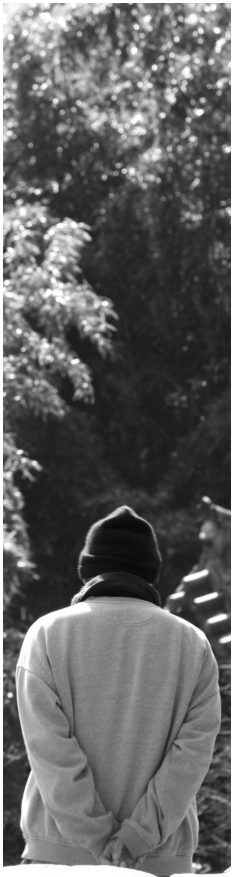
법정 스님의 이와 같은 발자취에 따라 오늘날 대중들은 법정 스님을 무소유(無所有)를 몸소 실천하는 스님으로, 맑고 향기롭게 운동을 펼치는 불교계의 어른 스님으로, 주옥같은 글로 대중을 감동시키는 온 국민의 스승으로, 한평생 청정하고 올곧게 수행하며 대중들 영혼을 맑히는 이 시대의 큰 스님으로 추앙하고 있다.

이처럼 법정 스님하면 떠올리게 되는 용어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 낱말은 '무소유'다.

법정 스님은 "우리는 필요에 따라 소유한다. 하지만 그 소유 때문에 마음이 쓰이게 된다. 따라서 무엇을 갖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에 얽매이는 일, 그러므로 많이 가지면 그만큼 많이 얽매이는 것이다."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무소유는 단순히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을 뜻한다"고 정의하셨다.

세속 명리와 번잡함을 싫어했던 법정 스님은 송광사 불일암 이래 최근까지 강원도 산골 오두막에서 은둔하는 삶을 사셨다. 수많은 상좌와 지인들 만류에도 아랑곳없이 홀로 땔감을 구하고 밭을 일구시며 청빈을 실천하셨다. 이렇게 맑은 삶을 스님은 주옥같은 산문으로 풀어내 대중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셨다.

무엇보다 스님의 간결하면서도 쉬움 말씀은 일반 독자들이 불교에 가까이 다가서게 하는데 큰 발자국을 남기셨다. 1976년 범우사에서 펴낸 〈무소유〉는 초판 발행 한 뒤 지금까지 꾸준하게 사랑받는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았으며 명 에세이로 손꼽히고 있다. 그 밖에 〈산에는 꽃이 피네〉, 〈일기일회〉 들은 수십만 독자가 찾는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행장

법명 : 法頂
(속명 朴在喆)

1932년 10월 8일 전남 해남군 문내면 선두리에서 朴根培 씨와 金仁葉 씨의 아들로 출생. 우수영 초등학교, 목포상업학교를 졸업하고 전남대 상과대학 3년 수료.

1954년 2월 15일 통영 미래사로 입산 출가.

1956년 7월 15일 송광사에서 당대의 큰 스승이었던 효봉 선사를 은사로 사미계 수계.

1959년 3월 15일 통도사 금강계단에서 자운 율사를 계사로 비구계 수계.

1959년 4월 15일 해인사 전문 강원에서 명봉 화상을 강주로 대교과 졸업.

1960년 초봄~1961년 운허 스님의 부름을 받고 통도사로 가 〈불교사전〉 편찬 작업에 동참했고 이 일을 계기로 타고난 문재(文才)를 발휘해 글을 쓰기 시작함. 한편 지리산 쌍계사, 가야산 해인사, 조계산 송광사 등 선원에서 수선안거(修禪安居)함.

1967년 동국역경원 개설에 참여하고 역경위원으로 활동.

1972년 스님의 첫 저서인 〈영혼의 모음〉 발간됨.

1973년 대한불교 조계종 기관지인 불교신문사 논설위원, 주필 역임. 함석헌, 장준하 등과 함께 민주수호국민협의회를 결성. 유신철폐 개헌 서명운동에 참여했으며 〈씨올의 소리〉 편집위원으로 참여함.

1975년 10월 불현듯 송광사로 돌아감.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발생, 8명의 민주화 운동을 하던 젊은이들이 사형당하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음. 반체제 운동의 한계를 느끼고 송광사 뒷산 중턱에 불일암을 짓고 홀로 수행함.

1976년 스님의 대표적인 저서 〈무소유〉 발간.

1984년~1987년 송광사 수련원장 역임. 1971년부터 구산 스님이 시작한 송광사 선 수련회는 법정 스님이 수련원장을 맡으면서 크게 확산되었다. 한해 6~7차례에 걸쳐 5백여 명 이상이 참가할 정도로 큰 호응을 받았다. 이와 같은 4박5일간의 짧은 출가는 전 불교계로 확산, 지금은 많은 사찰에서 선 수련회를 하고 있다.

1987년~1990년 보조사상연구원 원장 역임.

1987년 미국 LA에서 김영한 보살(1999년 작고함)이 자신의 소유인 대원각의 대지 7천여 평과 건물(40여 동) 일체를 불교의 수행도량으로 바꾸어달라며 기증할 뜻을 밝힘. 이때 법정 스님은 '저는 평생 주지 노릇을 해 본 일도 없고 앞으로도 주지가 될 생각은 없다'며 완곡한 사양의 뜻을 밝힘.

1992년 저작 활동으로 명성이 높아져 불일암으로 많은 불자들의 방문이 이어지자 다시 출가하는 마음으로 불일암을

떠나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강원도 산골, 화전민이 버리고간 오두막에서 지내기 시작함.

1993년 7월 "연못에 연꽃이 없더라"는 글을 발표해 정부의 종교 편향 정책을 지적함. 당시 기독교인인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독립기념관, 경복궁, 창덕궁 연못에 불교를 상징하는 꽃이라 하여 연꽃을 제거해 버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각 현장을 직접 확인한 뒤 "연못에 연꽃이 없더라"는 글을 발표함. 이 글을 통해 날로 각박해지고 메말라만 가는 인심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기 위한 시민 운동을 주창함. 또한 불자들의 시주 덕분에 살아왔으니 그 빚을 갚는다는 뜻으로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이끌게 되었음. 이 글이 발표되자 김영삼 대통령이 직접 실태를 파악한 후 잘못된 일이라며 시정하겠다는 뜻을 전함.

1993년 8월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 발기인 모임. 현호 스님, 청학 스님, 윤청광, 박수관, 김형균, 이계진, 강정옥, 정채봉, 김유후, 이성용씨 등 지인들의 권유로 순수 시민운동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을 시작함. 이 모임의 상징은 연꽃으로 하였고, 그 도안은 고현(조선대 교수)이 함.

1993년 10월 10일 프랑스 최초의 한국 사찰 파리 길상사(송광사 파리 분원) 개원. 유럽 여행 도중 프랑스 파리에서 만난 불자 교포들과 유학생들의 어려운 형편을 보고 재불(在佛) 화가들과 함께 뜻을 모아 법당을 마련하는데 나섬. 이때 도움을 받은 화주불자들을 위해 '길상회'를 결성, 서울 법련사 옆 출판회관에서 매월 1회 모임을 갖고, 〈선가귀감〉 등을 공부했으며 이 모임은 길상사 개원 때까지 이어졌다. 한편 맑고 향기롭게 모임의 창립에도 도움이 되었다. 당시 실무는

청학 스님이 맡음.

1994년 3월 26일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 법회. 서울 양재동 구룡사에서 창립 기념 대중 법문을 함. 같은 해 4월 4일에는 부산에서 역시 대중법문을 하여 일반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킴.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순수 시민단체를 지향, 회원 각자가 자신이 정한 방식대로 후원을 하고, 그에 힘입어 물이 흐르는 만큼 물길이 열리듯 회원들의 성의와 뜻을 모아 우선은 내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지니고, 이웃과 사회를 향한 나눔을 실천하며 소중하고 감사한 자연을 보전, 보존해가는 일에 힘쓰라는 스님의 뜻을 따라 전국 1만여 회원이 서울, 부산, 대구, 경남, 광주, 대전 등 6개 지역 모임에서 각각 활동하고 있음. 맑고 향기롭게 장학금을 마련,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매년 학비 지원.

1995년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이 조용히 정착하면서부터 김영한 보살이 거듭 대원각을 법정 스님께 기증하겠다는 뜻을 밝힘. 네 차례나 사양하던 법정 스님은 주변 사부대중의 간청을 수락해 김영한 보살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함. 다만 스님 개인이 아닌 조계종단의 이름으로, 자신은 상징적인 관리자(주지가 아닌 會主)의 입장에서 대원각을 기증 받겠다는 의지를 천명함.

1995년 6월 13일 대원각 터와 건물 일체를 길상사(吉祥寺)로 창건하면서 대한불교조계종 송광사 분원으로 등록함.

1996년 5월 20일 대원각 부동산 일체를 증여받음. 같은 해 6월 7일 서울지방법원 성북등기소에 등기를 마쳐 법적인 절차를 마침.

1996년 8월 청도 운문사에서 1회 맑고 향기롭게 회원 수련회 실시. 임원 및 전국의 회원 80명 참석.

1996년 9월 26일 김영한 보살의 대원각 기증과 길상사 창건 소식이 〈동아일보〉를 통해 보도되면서 전국적인 화제를 불러 일으킴. 당시 민심이 흉흉하던 터에 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길상사는 창건 법회 이후까지 언론의 중심에 서게 됨.

1996년 12월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이사장 취임. 회원이 생기고 후원금이 들어오면서 모임의 공신력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따라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인가를 받음. 이때 스님은 부득이 '이사장'이란 세속 직위를 얻었으나 그것은 서류상의 직책일 뿐이라며 이사장 대신 '회주(會主)'라는 호칭을 사용함. 여기서 회주는 어떤 모임의 중심이 되어 이끌어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이후 불교계에서는 특정한 소임을 맡지 않은 어른 스님을 일컫는 말로 자리 잡게 됨.

1997년 1월 말 사부대중으로 구성된 길상사 자문위원회를 통해 향후의 사찰 운영방안과 마스터플랜이 세워짐. 이때 같은 해 12월 14일을 창건 법회일로 정하고 차분히 개원을 준비함.

1997년 6월 말 기존에 대원각 터를 임대한 영업주가 임대 기간 만료일인 6월 말을 넘겨 11월 초까지 영업 기간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고 길상사측이 이를 수락해 창건에 따른 보수 공사가 지연됨.

1997년 8월 김천 직지사에서 2회 맑고 향기롭게 회원 수련회 실시. 전국에서 120명 회원이 참석하였고 3박 4일간의 일정을 스님이 직접 진두 지휘하심.

1997년 9월~12월 길상사 초대(初代) 주지 청학 스님의 주도로 불철주야 창건 보수 공사를 실시함. 수십 년 동안 요정으로 사용되었던 흔적을 일소하고 주요 건물을 극락전, 설법전, 요사채, 후원, 시민 선방으로 개조하는 일에 박차를 가함. 당시 법정 스님은 강원도 산골 마을에 주석하면서 길상사 창건 준비에 여념이 없는 사부대중을 여러 차례 격려함.

1997년 12월 14일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창건 법회. 4천여 불자가 참여한 가운데 경내 극락전에서 이계진(현 국회의원) 아나운서의 사회로 창건 법회가 진행됨. 각 언론사의 열띤 취재 경쟁 속에서 천주교 김수환 추기경이 창건 법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여 다시금 화제를 불러일으킴. 이 날 법정 스님은 "길상사가 가난하면서도 맑고 향기로운 도량이 되길 바란다"면서 "선택된 맑은 가난, 즉 청빈은 삶의 미덕이며 마음의 평화를 이루게 하고 올바른 정신을 지니게 한다"는 내용의 법문을 함. 김종서, 윤용숙, 김유후, 공종원 님 등을 자문위원으로 모심.

한편 법정 스님께 길상화(吉祥華)라는 법명을 받은 김영한 보살은 개원 법회에 참석해 "없는 것을 만들어서 드려야 하는데 있는 것을 내놓았을 뿐이니 의미가 없다"고 말해 모든 이들의 가슴에 환희심을 일으킴.

맑고 향기롭게 장학금을 길상화 보살의 뜻을 살려 "맑고 향기롭게 길상화 장학금"으로 바꾸고 이후 매년 전국의 중고교생 30명을 선정 장학금 지급함

1998년 2월 24일 명동성당 축성 100돌 기념 초청 강연. 김수환 추기경의 길상사 창건 법회 축사에 답례 성격도 있음. 글 쓰는 일 외에는 좀체로 하지 않으셨던 대중 법문을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창건에 대한 책임과 맑고 향기롭게 모임의 회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며 격월로 대중법문을 함.

1998년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하기 위한 노력으로 명예퇴직자를 위한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 개설. IMF로 갑작스레 직장에서 내몰리게 된 이들이 언제라도 찾아와 마음을 다스리고, 내일을 다시 준비할 용기를 낼 수 있는 수행과 휴식의 공간으로 운영함

1999년 서울 제기동 보문선원과 연대, 노숙자 무료급식소 개설. 매일 300명 이상의 노숙자들에게 점심 무료 제공.

2000년 결식이웃 밑반찬 지원 사업 시작. 노숙자가 늘어나면서 결식아동이 늘어나고 무의탁 노인들이 급격히 늘어나자 이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결식이웃 밑반찬 지원 사업을 100가구에서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10여 년간 지속하고 있음. 2010년 현재는 330여 가구를 지원함. 환경 문제의 올바른 인식 및 자연의 소중함을 체험을 통해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으로 사찰생태문화 기행을 시작, 2010년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음.

2003년 12월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회주에서 스스로 물러남. 당시 스님은 맑고 향기롭게 모임의 이사장직도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임원들의 거듭된 만류로 사임의 뜻을 철회함.

2004년 그간 격월로 해 오던「맑고 향기롭게」근본도량 길상사에서의 대중 법문을 연 2회, 4월과 10월 두 번 하심.

2005년~2007년 '맑고 향기로운 책'을 월 1권 선정. 3년간 총 36권을 회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읽기를 권유, 독서문화 확대 운동을 펼침.

2007년 10월 폐암 진단을 받음. 그러나 이 병고도 당신을 찾아온 친지 중 하나라며 어르고 달래며 지내시겠다는 것을 친지 및 상좌들이 수 차례에 걸쳐 간곡히 권유해 치료를 위해 도미함. 세계 최고 권위의 의사들조차 성공률 4%라며 치료를 주저하였으나 '이 분은 수행자로 일반인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친지들의 강력한 주장에 치료를 시작, 현대 의학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며 담당 의사들이 놀랄 정도로 회복하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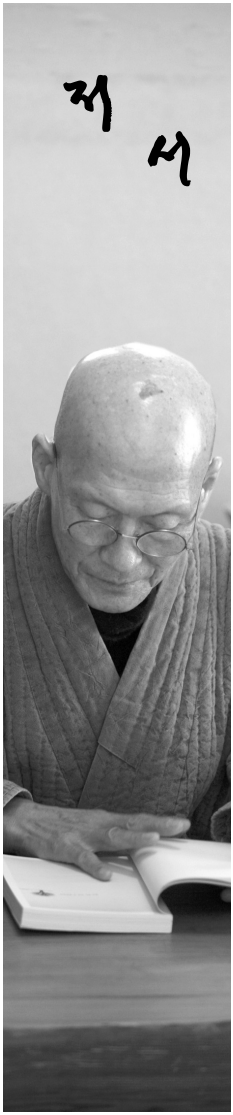
2008년 2월 미국에서의 치료를 마치고 귀국하심. 이후 다시 길상사에서의 정기 대중법문 하시고, 글도 다시 쓰실 정도로 회복하심.

2009년 4월 병고가 재발하여 치료, 요양하심.

2010년 3월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이사장, 길상사의 '어른 스님'으로 주석.

2010년 3월 11일 세수 79세, 법랍 56세로 송광사 서울분원 길상사에서 입적.

저서



법정 스님의 글은 정갈하며 향기롭고 여운이 남는 문체로 불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 특히 스님의 삶의 자취와 청정한 영혼이 담긴 수상록 등은 출판될 때마다 수십 만 독자의 관심을 끄는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고는 했다.

독자들은 자연을 지키며 청빈한 삶의 여유와 아름다움을 호소하는 스님의 글을 통해 영혼을 정화해왔다. 따라서 스님은 청정하며 올곧은 수행승으로, 이 시대의 참된 가치를 추구하는 영혼의 스승으로, 독자들의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가꿔주는 베스트셀러 작가로 존경받고 있다.

스님은 수많은 법문집과 경전 번역서, 여행서 등을 저술했는데 주요 목록은 다음과 같다. 출간년도와 출판사는 초판을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일부 저서는 초판 발행 후 출판사와 제목을 바꿔 출간되기도 했다.

법문집

산에는 꽃이 피네(1998, 동쪽나라), 일기일회(一期一會)(2009, 문학의숲), 한사람은 모두를 모두는 한사람을(2009, 문학의 숲)

산문집

영혼의 모음(毋音)(1972, 동서문화원), 무소유(1976, 범우사), 서 있는 사람들(1978, 샘터), 산방한담(1983, 샘터), 물소리 바람소리(1986,

샘터), 텅빈 충만(1989, 샘터),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숫타니파타 강론집(1990, 샘터), 버리고 떠나기(1993, 샘터),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1996, 샘터), 오두막 편지(1999, 이레), 홀로 사는 즐거움(2004, 샘터), 맑고 향기롭게 〈대표산문선〉(2006, 조화로운삶), 아름다운 마무리 〈맑고 향기롭게 소식지 권두언〉(2008, 문학의숲)

잠언집

봄 여름 가을 겨울(2001, 이레),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2006, 조화로운삶)

여행서

인도기행(1991, 샘터)

역서 / 편저

불교성전 〈공저〉(1972, 동국역경원), 효봉어록(曉峰語錄) 〈공저〉(1975, 조계산삼일암), 깨달음의 거울 -선가귀감-(1976, 홍법원), 지혜의 말씀 -법구경, 백유경-(1978, 교학사), 말과 침묵 -불교의 명언들-(1982, 샘터), 나누는 기쁨 -보현행원품-(1984, 불일출판사), 진리의 말씀 -법구경-(1984, 불일출판사), 달이 일천강에 비치리 -효봉선사의 자취-(1984, 불일출판사), 신역 화엄경(1988, 동국역경원), 밖에서 찾지말라 -보조선사 법어-(1989, 불일출판사), 불타석가모니(와타나베 쇼코, 1990, 샘터), 인연 이야기(1992, 불일출판사), 비유와 인연설화(1992, 동국역경원), 숫타니파타(1994, 샘터), 스승을 찾아서 -화엄경 입법계품-(2002, 동쪽나라)

관련 출판물

아! 장준하 그 심지에 다시 불길을 〈공저〉(1980, 동광출판사), 산 역사와 죽은 역사 〈공저〉(1980, 청람), 늘 깨어있는 사람〈공

저〉(1984, 흥사단출판부), 대화 〈공저〉(2004, 샘터)

어린이용 편저

참 좋은 이야기(2002, 동쪽나라), 참 맑은 이야기(2002, 동쪽나라), 법정 스님의 슬기로운 동화나라 1·2·3(2003, 동쪽나라)

오디오북

산에는 꽃이 피네 〈낭독 : 법정스님, 이계진〉(1999, 동쪽나라), 연꽃향기를 들으면서 〈낭독 : 김세원〉(2007, 아울루스)

영문판

The Mirror of Zen -The Classic Guide to Buddhist Practice of Zen Master So Sahn- 〈선가귀감, 영문판〉(2006, Random House), May All Beings Be Happy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영문판〉(2006, 조화로운 삶), The Sound of Water, the Sound of Wind : And Other Early Works by a Mountain Monk 〈산문모음집, 영문판〉(Brian Barry, Zen Master Bopjong, 2010, Jain Publishing Company)

중국어판

無所有 〈무소유, 중국어판〉(2005, 天下文化), 山中花開 〈산에는 꽃이 피네, 중국어판〉(2008, 明名文化), 凡活著的盡皆幸福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중국어판〉(2008, 遠流)

일본어판

無所有 〈무소유, 일본어판〉(2001, 東方出版), すべてを捨てて去る 〈버리고 떠나기, 일본어판〉(2003, 麗沢大学出版会), 生きとし生けるものに幸あれ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일본어판〉(2007, 麗澤大学出版会), 清く香しく 〈맑고 향기롭게, 일본어판〉(2008, めるくまーる)

법정 스님

다시 읽는 글

‘무소유’

“나는 가난한 탁발승이오. 내가 가진 거라고는 물레와 교도소에서 쓰던 밥그릇과 염소젖 한 깡통, 허름한 담요 여섯 장, 수건 그리고 대단치도 않은 평판, 이것뿐이오.”

마하트마 간디가 1931년 9월 런던에서 열린 제2차 원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가던 도중 마르세유 세관원에게 소지품을 펼쳐 보이면서 한 말이다. K. 크리팔라니가 엮은 〈간디어록〉을 읽다가 이 구절을 보고 나는 몹시 부끄러웠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적어도 지금의 내 분수로는 그렇다.

사실,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날 때 나는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았다. 살 만큼 살다가 이 지상의 적(籍)에서 사라져 갈 때에도 빈손으로 갈 것이다. 그런데 살다 보니 이것저것 내 몫이 생기게 되었다. 물론 일상에 소용되는 물건들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꼭 요긴한 것들만일까? 살펴볼수록 없어도 좋을 만한 것들이 적지 않다.

우리들이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갖게 되지만, 때로는 그 물건 때문에 적잖이 마음이 쓰이게 된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인다는 뜻이다. 필요에 따라 가졌던 것이 도리어 우리를 부자유하게 얽어맨다고 할 때 주객이 전도되어 우리는 가짐을 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흔히 자랑거리로 되어 있지만, 그만큼 많이 얽혀 있다는 측면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나는 지난해 여름까지 난초 두 분을 정성스레, 정말 정성을 다해 길렀었다. 3년 전 거처를 지금의 다래헌(茶來軒)으로 옮겨 왔을 때 어떤 스님이 우리 방으로 보내준 것이

다. 혼자 사는 거처라 살아 있는 생물이라고는 나하고 그 애들뿐이었다. 그 애들을 위해 관계 서적을 구해다 읽었고, 그 애들의 건강을 위해 하이포넥스인가 하는 비료를 구해오기도 했었다. 여름철이면 서늘한 그늘을 찾아 자리를 옮겨 주어야 했고, 겨울에는 그 애들을 위해 실내 온도를 내리곤 했다.

이런 정성을 일찍이 부모에게 바쳤더라면 아마 효자 소리를 듣고도 남았을 것이다. 이렇듯 애지중지 가꾼 보람으로 이른 봄이면 은은한 향기와 함께 연둣빛 꽃을 피워 나를 설레게 했고, 잎은 초승달처럼 항시 청정했었다. 우리 다래헌을 찾아온 사람마다 싱싱한 난초를 보고 한결같이 좋아라 했다.

지난해 여름 장마가 갠 어느 날 봉선사로 운허 노사(耘虛老師)를 뵈러 간 일이 있었다. 한낮이 되자 장마에 갇혔던 햇볕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리고 앞 개울물 소리에 어울려 숲 속에서는 매미들이 있는 대로 목청을 돋구었다.

아차! 이때서야 문득 생각이 난 것이다. 난초를 뜰에 내놓은 채 온 것이다. 모처럼 보인 찬란한 햇볕이 돌연 원망스러워졌다. 뜨거운 햇볕에 늘어져 있을 난초잎이 눈에 아른거려 더 지체할 수가 없었다. 허둥지둥 그 길로 돌아왔다. 아니나 다를까, 잎은 축 늘어져 있었다.

안타까워하며 샘물을 길어다 축여주고 했더니 겨우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어딘지 생생한 기운이 빠져버린 것 같았다.

나는 이때 온몸으로 그리고 마음속으로 절절히 느끼게 되었다. 집착이 괴로움인 것을. 그렇다. 나는 난초에게 너무 집념한 것이다. 이 집착에서 벗어나야겠다고 결심했다. 난을 가꾸면서는 산철(승가의 유행기)에도 나그네길을 떠나지 못한 채 꼼짝을 못했다. 밖에 볼일이 있어 잠시 방을 비울 때면 환기가 되도록 들창문을 조금 열어놓아야 했고, 분(盆)을 내놓은 채 나가다가 뒤미처 생각하고는 되돌아와 들여놓고 나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말 지독한 집착이었다.

며칠 후, 난초처럼 말이 없는 친구가 놀러 왔기에 선뜻 그의 품에 분을 안겨주었다. 비로소 나는 얽매임에서 벗어난 것이다. 날아갈듯 홀가분한 해방감. 3년 가까이 함께 지

낸 '유정(有情)'을 떠나보냈는데도 서운하고 허전함보다 홀가분한 마음이 앞섰다.

이때부터 나는 하루 한 가지씩 버려야겠다고 스스로 다짐을 했다. 난을 통해 무소유의 의미같은 걸 터득하게 됐다고나 할까.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소유사처럼 느껴진다. 보다 많은 자기네 몫을 위해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 소유욕에는 한정도 없고 휴일도 없다. 그저 하나라도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일념으로 출렁거리고 있다. 물건만으로는 성에 차질 않아 사람까지 소유하려 든다. 그 사람이 제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는 끔찍한 비극도 불사하면서, 제 정신도 갖지 못한 처지에 남을 가지려 하는 것이다.

소유욕은 이해와 정비례한다. 그것은 개인뿐 아니라 국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어제의 맹방들이 오늘에는 맞서게 되는가 하면, 서로 으르렁대던 나라끼리 친선 사절을 교환하는 사례를 우리는 얼마든지 보고 있다. 그것은 오로지 소유에 바탕을 둔 이해관계 때문이다. 만약 인간의 역사가 소유사에서 무소유사로 그 방향을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싸우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주지 못해 싸운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간디는 또 이런 말도 하고 있다.

"내게는 소유가 범죄처럼 생각된다……"

그가 무엇인가를 갖는다면 같은 물건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가질 수 있을 때 한한다는 것. 그러나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므로 자기 소유에 대해서 범죄처럼 자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들의 소유 관념이 때로는 우리들의 눈을 멀게 한다. 그래서 자기의 분수까지도 돌볼 새 없이 들뜬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한 번은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다. 내 이 육신마저 버리고 홀홀히 떠나 갈 것이다. 하고 많은 물량일지라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 물건으로 인해 마음을 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번쯤 생각해 볼 말씀이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것은 무소유의 또 다른 의미이다. 〈1971〉

법정 스님 어록

벚나무는 그런 빛깔의 꽃을 피우기 위해 한겨울에도 안으로 물감을 마련하면서 산 것이다. 봄철에 꽃을 피울 때까지 나무는 1년 동안 전 생명력을 기울여 꽃의 혼을 잉태하고 있는 것이다. 〈「텅빈 충만」 중에서 〉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이건 뜻을 담은 말이건 간에 듣는 귀가 바로 곁에 있다. 그것을 신이라고 이름 붙일 수도 있고, 영혼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불성(佛性)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곧 그 사람의 속뜰을 열어 보임이다. 그의 말을 통해 겹겹으로 닫긴 그의 내면세계를 훤히 알 수가 있다. 〈「텅빈 충만」 중에서 〉

사람의 생각이 어두우면 밝은 대낮에도 무서워지고 생각이 매인데 없으면 캄캄한 밤중이라도 무서울 게 없다. 그러니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은 마음의 장난일 경우가 지배적이다. 모든 것은 마음에 달린 것. 〈「텅빈 충만」 중에서 〉

언젠가 학생인 듯한 한 젊은이가 찾아와 불쑥 수류화개실(水流花開室)이 어디냐고 물었다. "네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다!"라고 했더니 그는 어리둥절해 했다. 〈「텅빈 충만」 중에서 〉

남을 해치는 말을 들으면 부모를 헐뜯는 말과 같이 여기라. 오늘은 남의 허물을 말하지만 내일은 머리를 돌려 내 허물을 말하게 될 것이다. 모든 일이 다 허망한 것인데, 비방과 칭찬에 어찌 걱정하고 기뻐할 것인가. 〈「텅빈 충만」 중에서 〉

우리가 순간순간 사는 일은 자기 생애의 소모인 동시에, 새로운 자신을 형성하고 실현하는 일로도 받아들여야 한다. 사람은 좌절하지 않고 노력하고 있는 한 자기 삶을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그런 존재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거듭거듭 새롭게 시작하고 형성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텅빈 충만」 중에서 〉

일을 할 때는 내 온몸과 마음이 그 일 자체가 되어야 한다. 책을 읽을 때도 그렇고 좌선을 할 때도 그렇고, 친구를 만나 이야기할 때에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자신이 하는 일에 전력투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하는 일에 실수가 없을 뿐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일 뒤에 가려진 세계까지도 인식할 수 있다. 일을 통해서 이치를 터득한다는 뜻이다. 〈「텅빈 충만」 중에서 〉

'나는 당신을 이해합니다'라는 말은 어디까지나 언론의 자유에 속한다. 남이 나를, 또한 내가 남을 어떻게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그저 이해하고 싶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타인(他人). 〈「영혼의 모음(母音)」 중에서 〉

사람은 엄마에게서 태어난 것만으로 인간이 되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동물적인 나이가 있을 뿐 인간으로서의 정신연령은 부재다. 반드시 어떤 만남에 의해서만 인간은 성장하고 또 형성된다. 그것이 사람이든 책이든 혹은 사상이든 간에 만남에 의해서 거듭거듭 형성되어 간다. 〈「영혼의 모음(母音)」 중에서 〉

바닷가의 조약돌을 그토록 둥글고 예쁘게 만든 것은 무쇠로 된 정이 아니라, 부드럽게 쓰다듬는 물결인 것을. 〈「영혼의 모음(母音)」 중에서 〉

인간의 계절은 어디서 오는걸까? 그것은 어디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마련하는 것.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비극은 있어도 절망은 없다. 새날을

비상(飛翔)하는 의지의 날개가 꺾이지 않는 한 좌절이란 있을 수 없다. 어제를 딛고 오늘은 일어서야 한다. 〈「영혼의 모음(母音)」 중에서 〉

너의 하루하루가 너를 형성한다. 그리고 머지 않아 한 가정을, 지붕 밑의 온도를 형성할 것이다. 또한 그 온도는 이웃으로 번져 한 사회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너의 있음은 절대적인 것이다. 없어도 그만인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다. 〈「영혼의 모음(母音)」 중에서 〉

우리들이 산다고 하는 것은 순간순간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지금은 못 살아도 먼 후일에 가서 잘 사는 것을 뜻할 수는 없습니다. 하루하루를 삶의 보람으로 누리면서 사는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영혼의 모음(母音)」 중에서 〉

불교란 부처님의 가르침만이 아니고 우리들 스스로가 부처님이 되는 길이다. 〈「영혼의 모음(母音)」 중에서 〉

먼저 살다간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하나같이, 인생은 짧다고 한다. 어물어물하고 있을 때 인생은 곧 끝나버린다는 것. 후딱 지나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곧 끝나버린다는 말이다. 〈「산방한담」 중에서 〉

오늘의 내 관심사는 외람되지만, 굳어진 그 얼굴에 어떻게 하면 미소와 생기를 되살아나게 할 것인가에 있다. 백제 와당에 새겨진 그 온화한 미소를. 우리는 우리 얼굴을 만들 책임이 있다. 인간이기 때문에. 〈「산방한담」 중에서 〉

볼 줄만 안다면 언제 어디서나 그 안목을 보고 즐길 수 있다. 아무리 많은 보물을 차지하고 있을지라도 그에게 안목이 없다면 그는 한낱 물건의 관리인에 불과하다. 〈「산방한담」 중에서 〉

사랑의 실천이란 자기와 타인이 서로 대립하고 있을 경우, 자기를 부정하고 타인에게 합일(合一)하려는 노력이다. 그것은 「닫혀진 나」로부터 「열려진 나」로의 비약일 수 있다. 삶은 대결이 아니라 포용이기 때문이다. 〈「산방한담」 중에서 〉

꽃이 져야 열매가 맺히듯이, 잎이 져버린 뒤 나무들은 비로소 침묵의 세계에 잠긴다. 발치에 흐트러져 있는 허상(虛像)의 옷을 내려다보면서. 〈「산방한담」 중에서 〉

구도자는 말을 하려고 할 때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려는 말이 내 자신에게도 이롭고 듣는 쪽에서도 이롭고, 이 말을 전해들을 제삼자에게도 이로운 말인가를.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면 입을 열고, 무의미하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하고 싶은 말도 꿀꺽 참아야 합니다. 참으면 덕이 된다고 하니까. 〈「산방한담」 중에서 〉

인생은 목적이 아니고 목적을 향해 살아가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착이 아니라 어디로 가고 있는 노정(路程) 그 자체입니다. 〈「산방한담」 중에서 〉

한낮의 좌정보다 자다가 깬 한밤중의 이 좌정을 나는 즐기고자 한다. 살아온 날들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지 않으니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소식으로 받아들인다면 기침이 오히려 고맙게 여겨질 때가 있다. 맑은 정신이 든다. 중천에 떠 있는 달처럼 내 둘레를 두루두루 비춰주고 싶다.
〈「홀로 사는 즐거움」 중에서 〉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세상은 우리 생각과 행위가 만들어낸 결과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천당도 만들고 지옥도 만든다는 것이다. 사람은 순간순간 그가 지닌 생각대로 되어간다. 이것이 업의 흐름이요, 그 법칙이다.
〈「홀로 사는 즐거움」 중에서 〉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와 거죽은 비슷하지만 실재는 아니다. 오늘의 나는 새로운 나다. 살아 있는 것은 이와 같이 늘 새롭다. 〈「홀로 사는 즐거움」 중에서 〉

어느 날 시속 백 킬로미터 구간에서 백 25킬로미터로 과속했다고 딱지가 날아왔다. 고속도로에 설치된 카메라가 찍은 것이다. 나는 이 통지서를 받고 순간 당황했지만 내 생활 개선을 위해 친절한 충고로 받아들였다. 〈「홀로 사는 즐거움」 중에서 〉

모든 것은 서로 이어져 있다. 바다 위에 외롭게 떠 있는 섬도 뿌리는 대지에 이어져 있듯. 〈「홀로 사는 즐거움」 중에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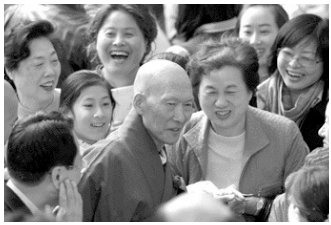
행복은 문을 두드리며 밖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서 꽃향기처럼 들려오는 것을 행복이라고 한다면, 멀리 밖으로 찾아 나설 것 없이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그것을 느끼면서 누릴 줄 알아야 한다. 〈「홀로 사는 즐거움」 중에서 〉

먹고 마시고 입고 걸치고 머물고 나다니면서 사는 우리는 알건 모르건 간에 수많은 사람들의 은혜와 보살핌 속에서 살아간다. '그림자 노동'이란 말이 있는데 집안에서 식구들이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보살피고 거들며 헌신하는 일을 가리킴이다. 〈「홀로 사는 즐거움」 중에서 〉

물도 바람처럼 흘러야 살 수 있습니다. 운수(雲水)라는 말에는 매인 데 없이 홀가분하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산다는 뜻보다도, 늘 살아서 움직이라는 데 본질적인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버리고 떠나기」 중에서 〉

우리 둘레는 하루하루가 고통으로 얼룩져 있는데 어떻게 좋은 날일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 생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 우리의 삶은 도전을 받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력에 의해 의미가 주어진다. 〈「버리고 떠나기」 중에서 〉

내가 만난 스님



법련사 비좁은 방에서 "맑고 향기롭게" 운동을 펼칠 단체의 명칭과 직책과 기구와 책임자를 청하는 자리에서 법정 스님이 느닷없이 "본부장은 윤 거사가 맡으시오" 하시는게 아닌가! 솔직히 나는 그때 아찔했다.

"스님, 그건 절대로 안됩니다!"

"왜요?"

"저는 술 마시지요. 담배 피우지요. 그리고 그보다도 더 나쁜 짓 많이 하는 사람이라 맑고 향기롭지 못한 사람인데, 감히 제가 어찌 "맑고 향기롭게"의 본부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저는 안됩니다."

그런데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법정 스님께서는 단호히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맡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나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다.

[맑고 향기롭게 모임 이사 윤청광]

벌써 10년 전 일이다. 길상사 교무 소임을 살 때였다.

"자, 이건 교무 스님에게 필요한 거. 나보다는 더 소용이 많을 거야."

내 손에 쥐어진 것은 평범한 펜 한 자루. 그래도 어른 스님이 선물을 주시는 데 뭔가 그럴싸한 것일 줄 알았건만….

아마 더 열심히 교무로 잘 살라는 가르침이었으리라. 그날 주신 펜 한 자루를 아직도 나는 사용치 못하고 있다. 내가 잘 살고 있는가를 문득문득 되돌아보게 해주기 때문이다.

언제고 자신 있게 그 펜을 사용하며 스님을 뵙고 싶었는데…

[조계종 포교국장 남전 스님]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맑고 향기로운 음악회'를 호암 아트홀에서 열던 날이다. 아직 행사가 시작되기 전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로비에서 삼삼오오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스님이 도착하시어 성큼성큼 로비로 들어서자 너나없이 합장 하고 스님을 반겼다. 그때 한 보살님이 책을 한 권 내밀며 말했다.

"스님, 한 말씀만 써주세요."

갑자기 스님이 발걸음을 멈추셨다. 그리곤 그 책에 쓰셨다.

"한 말씀."

그 날의 사회자는 참 민망했다고, 하지만 참 스님다우시다고 생각했다고 말씀 해 청중을 크게 웃게 해 주었다.

[맑고 향기롭게 모임 이사 이계진]

워낙 스님 글의 영향력이 대단해서 한 번은 슬쩍 여쭸다.

"다른 절들 얘기는 많이 쓰시는데 왜 미황사는 안 다뤄주시나요?"

스님은 허허 웃으시더니 말씀하셨다.

"글세, 웬지 미황사는 알리고 싶지 않더라구."

이 말씀 한 마디에 우리 절을 사랑하는 스님의 큰 마음이 느껴져 절로 자부심이 들었다.

스님 고향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지라 더러 스님의 친구분들이 찾아오신다. 그 중에는 내 중학교 도덕 선생님도 계신다. 어르신들은 절에 올라 오시면 꼭 말씀하시곤 한다.

"우리 친구가 00스님이야. 그 양반이 말야…, 젊어서는 찾아가도 별로 반가워 하는 것 같지 않았거든. 그런데 요즘은 잘해 주데. 꼬장꼬장한 그 성격이 둥글둥글해진거 같지. 허허"

그래서 일까. 해인사 중임에도 어른 스님이 아주 가깝고 친밀하게 느껴진다.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

맑고 향기롭게

흔히들 마음을 맑히라고, 비우라고 말을 한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마음을 맑히는 법이라고 얘기하는 이는 없다.

또 실제 생활이 마음을 비우고 사는 이처럼 여겨지는 사람 만나기도 쉽지 않다. 마음이란 결코 말로써, 관념으로써 맑혀지는 것이 아니다. 실질적인 선행(善行)을 했을 때 마음은 맑아진다.

선행이란 다름 아닌 나누는 행위를 이른다. 내가 많이 가진 것을 그저 퍼 주는게 아니라 내가 잠시 맡아 있던 것들을 그에게 되돌려주는 행위 일뿐이다.

마음을 맑히기 위해서는 또 작은 것, 적은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살아가는데 꼭 필요 불가결한 것만 지닐 줄 아는 것이 바로 작은 것에 만족하는 마음이다. 하찮은 것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소유할 수 있음에 감사하노라면 절로 맑은 기쁨이 샘솟는다. 그것이 행복이다.

인간이 적은 것에,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알았다면 오늘날과 같은 자연의 오염, 환경의 파괴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맑은 공기, 시원한 바람, 천연의 생수 등등 자연이 인간에게 무한정 베푸는 것에 비하면 인간은 자신들의 편리함, 편안함만 추구해 왔다. 그 결과 오늘날 지구는 중병을 앓고 있다.

인간들의 이기적 욕심이,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이 이제는 자신들의 생명마저 위협할 지경이 되었다. 이제 우리들, 인간들은 지혜의 선택을 해야만 한다. 물질의 노예가 아닌 나눌 줄 알고, 자제할 줄 알며, 만족할 줄 알고, 서로 손 잡을 줄 아는 심성을 회복해 가야만 한다. 이것이 참다운 삶을 사는 길이며, 삶을 풍요롭게 가꿔가는 방법이다.

깨달음에 이르려면 두 가지 일을 스스로 실행해야 한다. 하나는 자신을 속속들이 지켜 보는 것이다. 스스로 자신을 관리, 감시하여 행여라도 욕심 냄이 없도록 삿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또 하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콩 반쪽이라도 나눠 갖는 실천행이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배어있어야 한다.

이 두 길을 함께 하고자 여러분께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을 제안하는 바이다.

1994년 '맑고 향기롭게' 모임 발족 시
법정스님의 강연요지

맑고 향기로운 도량 길상사

시절인연을 만나 오늘 이곳이 길상스런 절로서 그 면모가 바뀌게 됐습니다. 이곳이 절이 되기까지는 시주인 김영한 님의 한결같은 소원과 몇몇 불자들의 지극한 발원이 한데 어우러져 그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이 일에는 자신의 소유물을 조건없이, 기꺼이 내놓은 시주의 마음이나 무심히 받아들인 저희들의 마음이나 묵묵히 따라준 이 터와 집들이 함께 그 어디에도 집착하거나 매인 데 없어, 이름 그대로 세가지(三輪)가 청정하고 공적(空寂)한 보시와 공양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길상사가 가난한 절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어떤 절이나 교회를 물을 것 없이, 신앙인의 분수를 망각한 채 호사스럽게 치장하고 흥청거리는 것이 이 시대의 유행처럼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절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안으로 수행하고 밖으로 교화하는 청정한 도량입니다. 진정한 수행과 교화는 호사스러움과 흥청거림에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어떤 종교단체를 막론하고 시대와 후세에 모범이 된 신앙인들은 하나같이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신앙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주어진 가난은 우리가 이겨내야 할 과제이지만, 선택된 맑은 가난 즉 청빈은 삶의 미덕입니다. 풍요 속에서는 사람이 병들기 쉽지만, 맑은 가난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이루게 하고 올바른 정신을 지니게 합니다. 오늘과 같은 경제난국은 물질적인 풍요에만 눈멀었던 우리들에게 우리 분수를 헤아리게 하고 맑은 가난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계기이기도 합니다.
이 길상사는 가난한 절이면서도 맑고 향기로운 도량이 되었으면 합니다. 불자들만이 아니라 누구나 부담없이 드나들면서 마음의 평안과 삶의 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 길상사가 맑고 향기로운 도량이 되려면 이 절에 몸담아 사는 스님들이나 신자들 뿐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길상스런 인연을 맺으신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꾸짖음이 뒤따라 주어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고 일깨워 주면서 함께 맑고 향기로운 도량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불기 2541년(서기 1997년)
12월 14일 길상사 창립 법문 중에서

2009년도 수입·지출 결의서

(2009.01.01 ~ 2009.12.31)

가. 세입부(수입)

단위 : 원

예산항목 관	항	목	2009년도 세입 예산액	2009년도 세입 결산액	증감내역 증(△)감(▽)	금년세입예산 산출근거	비고
기본수입	일반후원	서 울 회 원	200,000,000	267,757,565	△ 67,757,565	회원 및 외부회원	우덕재단
		소 계	**200,000,000**	**267,757,565**	△ **67,757,565**		
보통수입	특별후원	결식아동후원	2,400,000	2,900,000	△ 500,000	회원 및 외부회원	
		결 식 후 원	140,000,000	145,197,090	△ 5,197,090	회원회원	
		일 반 후 원	10,000,000	1,210,000	▽ 8,790,000	특별모금	북한돕기, 소아암돕기
		장 학 금 후 원	5,000,000	16,000,000	△ 11,000,000	회원 및 외부회원	
		소 계	**157,400,000**	**165,307,090**	△ **7,907,090**		
	행사수입	자연을 찾아가는 사람들	11,000,000	6,003,800	▽ 4,996,200	참가비 및 외부회원	
		알뜰환경지킴이 모 임	25,000,000	59,989,850	△ 34,989,850	생협물품구입비, 천연화장품 참가비 및 외부후원	
		소 계	**36,000,000**	**65,993,650**	△ **29,993,650**		
	기타수입	대 구 회 원	6,000,000	3,092,150	▽ 2,907,850		
		대 전 회 원	1,000,000	383,560	▽ 616,440		
		예 수 금		853,760	△ 853,760	2009년 잔액분	
		소 계	**7,000,000**	**4,329,470**	▽ **2,670,530**		
합 계			**400,400,000**	**503,387,775**	△ **102,987,775**		
전 년 이 월 금			**529,470,657**	**529,470,657**	△ -		
총 계			**929,870,657**	**1,032,858,432**	△ **102,987,775**		

나. 세출부(지출)

단위 : 원

예산항목 관	항	목	2009년도 세출 예산액	2009년도 세출 결산액	증감내역 증(△)감(▽)	금년세출예산 산출근거
사업비	장학사업비	장 학 금	56,000,000	46,234,580	▽ 9,765,420	서울소재 고교 등록금 평균치*27명
		소 계	**56,000,000**	**46,234,580**	▽ **9,765,420**	
	결연가족후원사업비	결식가족후원	14,600,000	10,322,330	▽ 4,277,670	
		결식이웃후원	166,800,000	149,270,840	▽ 17,529,160	
		일 반 후 원	32,200,000	27,282,970	▽ 4,917,030	
		나눔사업예비 예 산	100,000,000	-	▽ 100,000,000	
		소 계	**313,600,000**	**186,876,140**	▽ **126,723,860**	
	일반사업비	맑고향기로운책 선 정	1,200,000	69,550	▽ 1,130,450	
		책 읽 기 모 임	2,300,000	2,131,320	▽ 168,680	책릴레이
		자연을찾아가는 사 람 들	8,750,000	7,959,570	▽ 790,430	한국환경민간단체지원금

사업비	일반사업비	알뜰환경지킴이 모임	29,200,000	48,363,127	△	19,163,127	한국환경민간단체지원금
		지역모임후원	6,000,000	3,615,000	▽	2,385,000	대구·대전모임 지로후원금 대체(08년이월금포함)
		일반(지로) 수수료	3,000,000	2,828,220	▽	171,780	지로 및 CMS수수료
		차량구입		22,306,000	△	22,306,000	업무차량구입
		자원활동가 지원비		1,076,800	△	1,076,800	지정후원(이계진이사)
		전기분 오류정정		1,165,810	△	1,165,810	예수금 일반후원으로 대체분 정정
		소계	**50,450,000**	**89,515,397**	△	**39,065,397**	
	계몽활동비	소식집 발간 및 배포	29,000,000	26,352,580	▽	2,647,420	발송비, 인쇄비, 원고료 등
		연꽃스티커제작 및 배포	3,000,000	2,900,000	▽	100,000	2만원 5천장 제작
		기타홍보물제작 및 배포	13,600,000	10,515,020	▽	3,084,980	달력, 지로용지, 봉투, 리플릿 등 제작
		홈페이지관리비	2,000,000	3,123,620	△	1,123,620	회원관리, CMS프로그램
		회원교육비	3,450,000	3,014,980	▽	435,020	전국모범회원 표창 및 교육
		소계	**51,050,000**	**45,906,200**	▽	**5,143,800**	
합계			**471,100,000**	**368,532,317**	△	**102,567,683**	

단위 : 원

예산항목			2009년도 세출 예산액	2009년도 세출 결산액	증감내역 증(△)감(▽)		금년세출예산 산출근거
관	항	목					
운영비	장학사업비	급여	79,000,000	74,846,770	▽	4,153,230	상근간사 4인
		상여금	17,000,000	16,010,000	▽	990,000	상근간사4인 - 연 400%
		퇴직금적립	24,000,000	24,000,000	▽	-	퇴직금2인 / 퇴직연금4인
		소모품비	1,500,000	1,030,100	▽	469,900	
		비품비	3,000,000		▽	3,000,000	
		통신비	2,500,000	2,304,018	▽	195,982	
		세금과공과	700,000	1,125,170	△	425,170	차량등록세 등
		복리후생비	7,000,000	6,812,850	▽	187,150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보험료	3,000,000	2,756,550	▽	234,450	산재보험, 차량보험
		차량유지비	3,500,000	2,650,080	▽	849,920	
		접대비	2,000,000	740,000	▽	1,260,000	임원 및 모듬장, 직원 경조사
		잡비	1,000,000	594,900	▽	405,100	지급수수료, 구독료, 운반비 등
		사무실 유지관리비	2,000,000	740,000	▽	1,260,000	홍보 게시판
		예비비	5,000,000		▽	5,000,000	
		예수금	-	413,570	△	413,570	2008년 이월금
		소계	**56,000,000**	**134,024,008**	▽	**17,175,992**	
합계			**622,300,000**	**502,556,325**	▽	**119,743,675**	
차기이월금			**307,570,657**	**530,302,107**	△	**222,731,450**	
총계			**929,870,657**	**1,032,858,432**	△	**102,987,775**	

진인선원(14일, 매월 둘째 일요일)
(소감 : 이금재 모둠장)

날씨가 포근했다. 샌드위치와 커피 김밥으로 요기하고 용현자 영양사 선생님과 인사하고 작업내용을 지시받았다. 기대하였던 간장담기는 날씨가 추워 동파우려로 취소해 실망이 앞섰지만 대신 김치통과 간장독을 옮겨 세척하고 간단한 주방 보조일을 지원했다. 점심 후 대의원대회 결과 및 사무국 전달사항을 설명하고 오후 놀이활동은 어르신의 특성을 고려하여 40분 내외로 지시받았다. 문수원과 묘희원에서 어르신과 손뼉치고 잼잼하며 노래 불렀는데 새롭게 참여하신 4분의 활동이 활발했다. 마무리 반성을 하고 서울로 향하면서 법정스님 다비식 이후 스님 유골이 길상사에 도착했다는 문자를 받고 참석가능한 회원은 스님을 맞이하고자 길상사에 도착했다.

묘희원(7일, 매월 첫째 일요일)
(소감 : 한인섭 모둠장)

아침공기와 나뭇가지에서도 봄을 느낄 수 있는 날, 만물이 소생하는 봄에 어른스님의 법문을 들을 수 있도록 쾌유를 빌었지만, 삼성병원에 입원하였다는 보도를 들은 상태라 묘희원으로 가는 발걸음이 가볍지 않았다. 정원수 이식작업을 시작하였는데 오늘 봉사활동에서 처음 참가하신 남석호님이 나무에 조예가 깊은 관계로 이식작업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어서 무너진 묘희원 텃밭 둑에 돌쌓기 작업을 하면서 도르래를 이용한 돌 운반작업까지 모두들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하였다. 점심시간을 이용한 회의에서 봉사자들 모두 어른스님의 쾌유를 빌었다. 항상 묘희원 봉사활동에 거마를 제공해주고 계신 홍순천님이 묘희원 봉사팀의 단합차원에서 여수 향일암과 진달래꽃으로 유명한 영취산 등반을 제의하고 추진해보겠다고 해 모두 큰 박수로 환영했다. 오후 부직포 옮기는 작업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전화말벗봉사(매주 한 통화씩)

매주 8명이 대상자들에게 매주 전화를 하고 있다. 법정스님께서 입적한 뉴스를 보고, 몇몇 어르신께서 봉사자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주시기도 하였다. 지난 3월초부터 김태현 학생이 어르신 다섯분에게 전화를 하고 있는데, 주변에 어렵게 사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다는 것에 새삼 놀랐고, 어르신께서 손자처럼 잘 대해주고 있다고 한다. 박광석 어르신께서 장래희망을 물어봐서 의사가 되겠다고 하였더니 꼭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훌륭한 의사

가 되어 각박한 세상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주셨다.

서울노인복지센터(월요팀)
(귄미자 모둠장)

1일 손현정 - 3월 1일 연휴 마지막 날인데다 아침부터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눈이 내리는 험한 날씨 탓에 평소보다 200명 정도 적은 1935분의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고 가셨다. 이날 서울노인복지센터 안은 3.1절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들로 활기차고 따뜻한 분위기였다. 이날 반찬으로는 톳두부무침과 어묵볶음이 나왔는데, 평소보다 어르신들이 적게 오신 탓에 '반찬의 양을 잘못 조절해서 나중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반찬을 못드시면 어떡하지'라는 조마조마한 마음없이 넉넉하게 담아드릴 수 있어서 좋았다.

3일 변윤정 - 서울노인복지센터 봉사2팀은 한달에 한번 첫째 수요일 활동하기 때문에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항상 열심히 활동해주신다. 오늘 날씨는 쌀쌀했지만 마음만은 훈훈했다.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길 바래본다.

8일 김은주 - 오늘은 설거지 담당, 하는 일은 식기세척, 숟가락 젓가락 세척과 정리정돈, 모두들 깨끗이 씻고 삶고 건조시키고 시간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했다. 어떤 임무를 주어도 항상 열심히 하는 우리 맑고 향기롭게 팀! 우리팀의 팀웍은 복지관에서도 알아준다.

서울시립요양원(1, 2, 3주 목요일)
(소감 : 오은주 모둠장)

두달여동안의 리모델링 공사가 끝난 후 시립요양원이 양로원으로 바뀌면서 중증어르신은 월곡동 노인병원에 계시고 안오셨다. 현재 한 30여분이 계시고 음악치료에 어르신 16명이 나오셨다. 두달여만에 찾아 뵙고 박수치고 노래 부르고 하였더니 너무 신이 났었고, 어르신들도 즐거워하셨다. 예전에 계셨던 어르신들이 즐겨 부르던 노래를 부르니 그분들 생각이 많이 났었다.

결식아웃 밑반찬 조리(매주 목, 금요일)
(소감 : 최두리 모둠장)

4·5일 - 무조림은 시간과 노력에 비해 티가 나지 않는 음식인 것 같다. 생선이나 다른 재료를 넣어 어우러지면 더 나을 것 같다.

11·12일 - 오늘같은 날은 정말 일하기가 싫었다.(11일 법정스님 입적일) 봉사자들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합장하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들 계셨다. 스님, 가슴깊이 고이 모시고 떠나신

자리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18·19일 – 봉사자 한분이 쓰레기봉투 부피 줄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다. 몇 주동안 공양주 보살님의 배려로 가까운 화장실을 이용했는데 다시 길상사 해우소를 사용하기로 했다.

25·26일 – 오전내내 파를 다듬고 명태무조림을 했다. 도중에 이슬비가 왔다. 함께 해준 봉사자들이 가족처럼 느껴진다.

(총 340가구, 단체1곳)

1째주 – 조개젓무침, 무조림
2째주 – 김치
3째주 – 무생채, 새우마늘쫑볶음, 구운김
4째주 – 명태무조림

※ 지난 2/1~2/28까지의 결식이웃 후원금총액은 12,543,030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결식이웃후원계좌 : (사)맑고 향기롭게
국민은행 817-01-0255-458

2010년 '맑고 향기롭게 길상화 장학생' 후보 추천

- 추천서 접수 마감: 2010년 3월 27일(토)
- 장학생 선정 발표: 2010년 4월 2일(금) 개별 통지 및 학교로 연락
- 장학증서 및 장학금 수여식: 2010년 4월 10일(토) / 도서관

서울모임

제25차 (사)맑고 향기롭게 2010년도 정기 대의원 총회 보고

지난 2월 27일(토) 오후 2시 길상사 도서관에서 2010년도 정기 대의원 총회가 열렸습니다. 재적대의원 42명 중 27명(위임 9명, 불참 6명)이 참석한 이날 총회는 이사장 직무대행 여윤현(덕현스님) 이사 주재로 2009년도 수지결산 및 감사보고의 건,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확정의 건, 전 임원 재신임의 건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2009년도 수지결산 및 감사보고의 건에서 김자경 국장은 배포한 자료에 의거 수입부분에서 일반후원금, 결식후원금, 특별후원금 등 1억여원의 초과수입이 있었던 것은 작년부터 실시한 알뜰나눔장터, 생협택배 주문 등의 증가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지출부분은 마음부분, 세상부분, 자연부분, 기타부분으로 나누어 5억여원의 구체적인 지출내역을 소개했고,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확정의 건 역시 김자경 국장의 발표 후 같은 절차에 의해 가결되었으며, 전 임원 재신임의 건에서는 김진곤, 선병주 회원이 새로 선임되었으며, 나머지 임원은 중임되었습니다.

자연을 찾는 사람들의 숲기행 – 4월 17일(토). 영덕 풍차길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셋째 토요일에 경상북도의 숲을 찾아 떠납니다. 올해 첫 기행지는 바닷가이기도 한 경북 영덕 풍차길로 정했으며, 박희준 선생님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참가비 송금 계좌〉 외환은행
301-22-00270-1 (사)맑고 향기롭게
〈회비〉 회원(직계가족포함) – 20,000원 / 비회원–25,000원

- 참가신청 후 3일 이내 입금시 참가 확정. 홈피에 명단 게시. 불참시 행사 2일전까지 1회에 한해 다음달로만 이월 가능
- 불참시 환불 규칙
  - 행사 4일전: 전액 환불(송금수수료 본인 부담: 국민은행 외 600원)
  - 2일전: 참가비의 50% 환불
  - 1일전~당일불참: 참가비 숲기행 진행비로 적립(환불 안됨, 다음달 이월도 불가)
- 접수시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여행자 보험용) 필요
- 선착순 42명(42명이 넘을 경우는 대기자)

※ 신청은 사무국으로만 가능
(02)741-4696~7 / 담당 : 홍정근 팀장

<2010년의 숲기행 주제 및 일정>

- 주제: 경상북도의 숲을 찾아서
- 일정: 4월 17일 – 영덕 풍차길(영덕풍력발전단지~하저해수욕장) / 5월 15일 – 문경 운달산 숲길과 김룡사 / 6월 19일 – 봉화 청량산도립공원 / 7월 17일 – 문경새재옛길 / 8월 21일 – 치산계곡(산자락 계단식 농경지 사잇길과 계곡) / 9월 18일 – 죽령옛길(소백산 자락길 2구간의 일부) / 10월 16일 – 죽계계곡~초암사~비로사~삼가리 구간(소백산 자락길 1구간의 일부)

전화말벗 대상자 추천 받습니다

맑고 향기롭게 전화말벗 활동은 결식이웃 후원대상자인 재가독거노인, 장애인에게 매주 1회 이상 전화 통화를 통해 일상적인 안부와 건강, 영양상태, 생활환경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대상자의 소외감과 고독감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007년부터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재가독거노인, 장애인을 위한 전화말벗, 상담활동을 확충하려 합니다. 주변에 말벗이 필요한 어르신, 장애인이 있으면 협의 후 인적사항을 사무국으로 추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티 후원 성금 내역

회원님들께서 내주신 아이티 후원금은 3월 23일까지 총 4차에 걸쳐 유니세프에 전달했습니다.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모금은 계속 진행됨을 알립니다.
(외환 117-13-60373-4 (사)맑고 향기롭게)

1차 성금 : 1월 29일(금) 5백만원
2차 성금 : 2월 9일(화) 2백만원
3차 성금 : 3월 2일(화) 3백3십3만3천원
4차 성금 : 3월 23일(화) 1백9십만5천원
총 12,238,000원

의류 재활용 소품 만들기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바느질방에서 의류재활용 소품만들기가 진행중입니다. 바느질 솜씨가 없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가정에서 안 입고, 버리려 했던 옷가지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 문의 : (02)741-4696

4월의 서울모임 정기 활동 안내

- 묘희원(치매노인 요양시설) 일손 돕기 정기 자원 활동 / 매달 첫째 일요일(4월 4일, 5월 2일) / 오전 8시 30분 / 지하철 2, 4호선 사당역 10번 출구 한전 남부지점 앞 / 간편복 및 면장갑(농사일 돕기) / 일반 자원활동가
- 결식이웃 후원 밑반찬 조리 자원활동 / 매주 목, 금요일(4월 1일, 2일, 8일, 9일, 15일, 16일, 22일, 23일, 29일, 30일) 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맑고 조리장(길상사 주차장 위) / 양념이 묻어도 좋을 일복 차림
- 진인선원(치매노인 요양시설) 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마당 정기 자원활동-둘째 일요일(4월 11일) 오전 8시 20분 경복궁 건춘문 앞 출발
- 서울시립요양원 정기 자원활동 / 1, 8, 15일(1, 2, 3주 목요일) 오후 1시 30분 / 함께 노래 부르기 / 지하철 7호선 수락역 1번 출구 집결 / 일반 자원활동자 / 매주 화요일까지 참가 신청 요망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무료급식 자원활동 / 5, 12, 19, 26일(매주 월요일)과 4월 7일(매월 첫째 수요일) 오전 10시~오후 2시 / 배식, 설거지, 식탁 정리, 수저 나누기 등 / 다른 요일 자원활동자도 수시 모집 중 / 자원활동자 교육 후 봉사
- 천연화장품 / 매주 수요일 샴푸, 로션, 세럼, 한방비누 순으로 만들기 실시 / 오후 1시~3시 / 길상사 바느질방 / 선착순 8명 마감 / 재료비 본인 부담
- 의류재활용 강좌 / 매주 화요일 / 오후 2시 30분 / 길상사 바느질방 / 선착순 10명 마감
- 전화말벗봉사 월례회의 / 4월 12일(월) 매달 두번째 월요일, 오후 1시 / 사무실
- 모둠장 회의 / 4월 27일(화) / 매달 넷째 화요일, 오후 7시 / 중앙모임 사무실
- 길상사 - 맑고 향기롭게 선수련회
  신참반 : 4월 17-18일(셋째주)
  구참반 : 4월 24-25일(넷째주)
  토요일 오후 3시~일요일 오후 4시까지
  수건과 세면도구, 양말준비
- 맑고 향기롭게 회원만남의 날 / 4월 16일 / 오후 2시 / 도서관

일반사업후원계좌 : (사)맑고 향기롭게
국민은행 817-01-0253-129

토요법담 – 법구경

반야심경이 끝나는 4월부터 '법구경'을 시작합니다. 주지스님의 법구경 강의와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지는 토요일 2시! 공부하면서 행복해지는 토요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시접수하며 동참금은 3개월에 7만원입니다.

자원봉사자 모집

1. 도서관 : 도서 정리
2. 종무소 : 종무소에서 일러스트 작업(그래픽 디자인)이 가능한 봉사자
3. 자판기 : 청소 및 정기 봉사
4. 각 신행단체 회원 : 보현회, 문수회, 지장회, 관음회, 합창단

연등 접수 시작

불기 2554년 5월 21일, 부처님 오신 날을 환히 밝힐 연등을 접수중입니다. 길상사에서는 연등에 따로 가격을 매기지 않습니다. 성의껏 동참하시면 됩니다.

'자비의 선물' 접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자비의 선물을 나누고자 합니다. 1만원 상당의 생필품(비누, 양말, 식용유, 김 등)을 담아주시거나 성금을 주시면 어려운 이웃들에게 부처님 오신 날, 자비의 선물을 전달합니다.

지장전 천일기도 400일째 회향 및 500일째 입재

지장전에서 봉행하고 있는 천일기도의 400일째 회향이 4월 17일에 있습니다. 회향식 날에는 영가천도를 위한 시식도 합니다. 500일로 향하는 기도 입재일은 4월 18일입니다.

문화강좌

• 꽃꽂이반 – 금요일 1시 • 다도반(초급) – 금요일 오후 1시 반 • 다도반(중급) – 화요일 오후 1시 반 • 불화반 – 목요일 오전 10시 • 요가반 – 목요일 오후 2시 • 서예반 / 수묵그림반 – 월요일 2시 (각 수강료 : 3개월 10만원)

4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및 기도

• 일요법회 : 오전 10시 • 토요법담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설법전 • 다라니기도 : 4월 3일(토) 오후 8시 반 / 설법전 • 삼천배기도 : 4월 10일(토) 오후 8시 • 극락전 기도 : 새벽 4시, 오전 10시, 저녁 7시 • 지장전 기도 : 새벽 4시, 오전 10시, 저녁 7시 • 거사림 정기법회 : 1, 3주 일요일 오후 1시 • 청년회 정기법회 : 일요일 오후 1시 • 보현회 정기법회 : 음력 초하루 / 4월 14일 오후 1시 • 문수회 정기법회 : 셋째 월요일 / 4월 19일 • 지장회 정기법회 : 둘째 월요일 / 4월 12일 오후 1시 • 합창단 정기법회 : 넷째 화요일 / 4월 27일 오후 1시 • 영어로 만나는 불교 : 일요일 오전 11시

2010년 4월 1일(매월 1회) 발행 · 통권182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 등록번호 서울라08700호 ·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136-022 서울 성북구 성북2동 323 길상사 내

법정스님 추모 일정

초재	(3월 17일)	길상사 극락전
이재	(3월 24일)	길상사 극락전
삼재	(3월 31일)	길상사 극락전
사재	(4월 7일)	길상사 극락전
오재	(4월 14일)	광 주 무각사
육재	(4월 21일)	길상사 극락전
사십구재	(4월 28일)	순 천 송광사